

셀트리온 항암 바이오시밀러, 美·호주 등 글로벌 영토 확장

(베그젤마, 허주마 등)

‘베그젤마’ 호주 판매 허가 획득
항암 항체치료제 포트폴리오 구축
美 등 주요국 커버리지 확대 계획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암바이오시밀러가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주마에 이어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용 등에 쓰이는 베그젤마가 합세하며 항암 치료제 트리오를 완성했다.

셀트리온은 4일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만 여섯 번째 바이오시밀러 허가다.

셀트리온은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신세포암, 자궁경부암,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원발성 복막암, 교모세포종 등 호주서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Full Label)에 대해 베그젤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로 오세아니아 내 셀트리온의 상업화 제품은 6개로 늘어났다. 셀트리온은 호주에서 2015년부터 자가

가에서도 베그젤마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베그젤마를 출시한 이후, 최근 미국 상위 5개 보험사(가입자수 기준) 중 한 곳을 포함한 10여 곳의 사보험사 처방집에 베그젤마 등재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공보험을 포함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0%를 커버하는데 성공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여러 보험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초까지 60% 이상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며 향후 2~3년간 베그젤마를 공급하게 됐다. 특히 트룩시마와 허주마와 같은 항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유럽에서 점유율 선두권을 유지하는 만큼 향후 처방 확대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허가를 획득한 호주를 포함하면 베그젤마의 판매가 허가된 국가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한국 등 총 39개국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지난 1일 이대서울병원 1층 우복희 아트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대대동맥혈관병원 개원... “세계 1등 목표”

“대동맥 치료 전 과정 빈틈없이 케어”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지난 1일 이대서울병원 1층 우복희 아트홀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국내 대학병원 차원에서는 최초로 대동맥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세계 최고의 대동맥혈관병원’을 목표로 운영된다.

지난 6월 19일 진료를 시작한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불과 2개월 만에 대동맥 수술 100례를 돌파했다. 이는 국내 최단기간 기록으로 산술적으로 연간 대동맥 관련 수술이 600건에서 1000여 건까지 가능하다.

대동맥질환 환자 전원 문의의 시 의료

진 및 행정파트까지 문자가 전송돼 환자 도착 전에 수술 준비를 마치는 ‘EX PRESS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환자 도착과 함께 바로 수술장으로 이동이 가능해 초응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

송석원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동맥 치료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제공하고자 대동맥 전문병원이 탄생했다”며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동맥 수술의 3분의 1을 소화해내는 병원이자 압도적 실력과 압도적 시설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압도적 1등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 기자

HK이노엔, ‘케이캡’ 싱가포르 출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싱가포르서 출시 기념 심포지엄 개최
의료진에 특징점·처방 경험 등 소개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이 싱가포르에 출시됐다. 이를 기념해 국내 및 해외 소화기 석학이 연자로 나서 싱가포르 의료진에게 케이캡의 특징점과 실제 처방 경험을 소개했다.

HK이노엔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콘래드 센테니얼 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출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싱가포르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현지 파트너사인 UITC가 주관했다. 심포지엄에

는 각 나라의 소화기 권위자인 미국 가왈리 교수(워싱턴의대 반스 주이시 병원 소화기내과)와 한국의 정훈용 교수(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가 연자로 나서 대표적인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의 최신 지견을 나눴다.

주요 임상시험을 토대로 케이캡의 특징점을 강연한 워싱턴의대 반스 주이시 병원의 가왈리 교수는 케이캡이 같은 P-CAB 계열의 다른 성분 약물보다 효과 발현 시간이 빠르고 간독성 부분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점을 강조하며 케이캡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주목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

수는 한국에서의 케이캡 처방 경험을 발표하며 PPI 계열 제품들이 갖고 있던 한계를 케이캡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여러 사례를 소개해 싱가포르 의료진의 관심을 받았다.

케이캡은 싱가포르에서 지난 2월에 허가를 받았고, 제품명은 한국과 동일하다. HK이노엔은 현지 파트너사인 UITC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UITC는 현지 영업 및 마케팅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외 케이캡이 기술 또는 완제품 수출 형태로 진출한 해외 국가는 총 35개 국가다. 이 중 현지 출시를 마친 해외 국가는 중국, 몽골,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이다.

/이세경 기자

KGC인삼소 “올 추석엔 힘이되는 선물 챙기세요”

정관장 제품 등 할인·추가 증정

KGC인삼공사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올 추석엔 힘이되는 선물’ 프로모션을 9월 5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6일제 근무 등으로 고생했던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콘셉트로 정관장 홍삼의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행개선’, ‘항산화’ 등의 과학적으로 검증된 힘을 선물로 전한다는 계획이다.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19종의 다보록 선물세트를 비롯해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탄’, ‘화애락’, ‘홍천옹’, ‘천녹’, ‘황진단’, ‘홍이장균’, ‘아이패스’ 등의 인기제품에 대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정관장 멤버스 회원의 이용 혜택 범위를 강화해 ‘천녹’, ‘에브리타임 리미티드’, ‘화애락 터닝미’, ‘홍삼탄골드’, ‘알파프로젝트’, ‘굿베이스’ 등의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추가적인 가격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정관장 멤버스 신규가입 고객에게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정관장 활삼28(2병)’을 추가로 증정하고 전 멤버스 회원은 등급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농심 ‘라면왕김통개사발’ 출시

농심의 ‘라면왕김통개사발’을 컵라면으로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됐다.



농심은 지난해 8월 출시한 라면왕김통개의 꾸준한 인기로 힘입어 컵라면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출시 한 달 만에 500만 개가 판매되는 등 뜨거운 초반 열풍을 일으킨 라면왕김통개는 1년간 누적 매출액 200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라면왕김통개사발(사진)은 풍성한 구운 김 후레이크와 볶음 참깨, 고추기름 조미유 등 라면왕김통개의 맛을 그대로 컵라면에 담은 제품이다.

/신원선 기자

식신, 기술기업특례상장 사전 평가 통과

‘식신e식권’ 등 기술력·사업성 인정

모바일 식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 식신이 기술 특례상장을 위한 사전 기술평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기술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한 상장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 기관 2곳의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과 B, B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식신은 모바일 식권 서비스인 ‘식신e식권’ 서비스와 맛집 정보 서비스 ‘식신’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기술

평가에서는 AI 지능형 결제 기술, 복합 단말 기술, FS 솔루션, AI 학습 및 분석 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생성형 AI 기술 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기술의 독창성과 확장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식신은 이번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의 협의를 거쳐 올 4분기 내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식신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푸드테크 업계 최초로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한 사례가 된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푸드테크 대표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와인픽스 청담점, 일 매출 2억 돌파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운영하는 와인픽스가 청담점 오픈 첫날 매출 2억 원을 돌파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일 오픈한 와인픽스 청담점은 미국 컬트 와인부터 보르도 올드 빈티지, 이태리 프리미엄 와인, 그랑 크뤼 등급 부르고뉴 와인과 샤페인까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와인들과 각종 주류와 관련된 3000여종의 상품을 한자리

에서 만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다.

나라셀라는 와인픽스 청담점 오픈을 기념해 한정상품 선착순 판매, 위스키 대방출, 특가 판매, 세트 와인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했다. 오는 30일까지 맥켈란의 대표 제품을 직접 시향해 보고, 디스틸러리 VR 체험까지 할 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세트 할인, 구매 금액에 따른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원선 기자